

## 서재응, 투심 장착 15승 쏜다

<two seam>

“15승 사냥, 팀 분위기 메이커 두 가지 토끼 잡았다.”

KIA 타이거즈의 투수 서재응이 '15승 고지'를 2011시즌 목표로 내걸었다. 메이저리그 무대에서 뛰었던 서재응은 뉴욕 메츠에서 활약했던 2003년 자신의 최다승인 9승을 올렸다.

2008년 한국 무대에 뛰어든 서재응은 첫째 5승을 거두는 데 그치는 등 아직까지 10승 고지를 밟아본 적이 없다.

지난 시즌에는 넓어진 스트라이크존을 심분 활용한 노련한 투구로 '컨트롤 아티스트'

의 부활을 알리기도 했지만, 3.34의 방어율로 9승7패를 기록하며 끝내 10승 문턱을 밟지 못했다.

한국에서의 4번째 시즌을 앞두고 있는 서재응은 “한국에 온 후 잔부상으로 고생하기도 했지만 부상없이 몸 상태도 좋은 만큼 올 시즌에는 10승을 넘어 15승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얻은 자신감이 서재응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서재응은 지난 시즌 팔 각도를 내리고 하체를 이용한 피칭을 하는 등 투구폼을 손질했다. 하체위주의 피칭으로 팔꿈치 통

증에 대한 부담감을 던 서재응은 슬라이더 비율을 높이면서 투구 패턴에도 변화를 줬다.

넓어진 스트라이크존도 정밀함이 장점인 서재응의 피칭에 힘을 더해지면서 한국 복귀 후 최고의 한해를 보냈다.

올 시즌 서재응의 최상의 무기는 투심패스트볼이다. 서재응은 투심을 앞세워 전반기 승수사냥에 나설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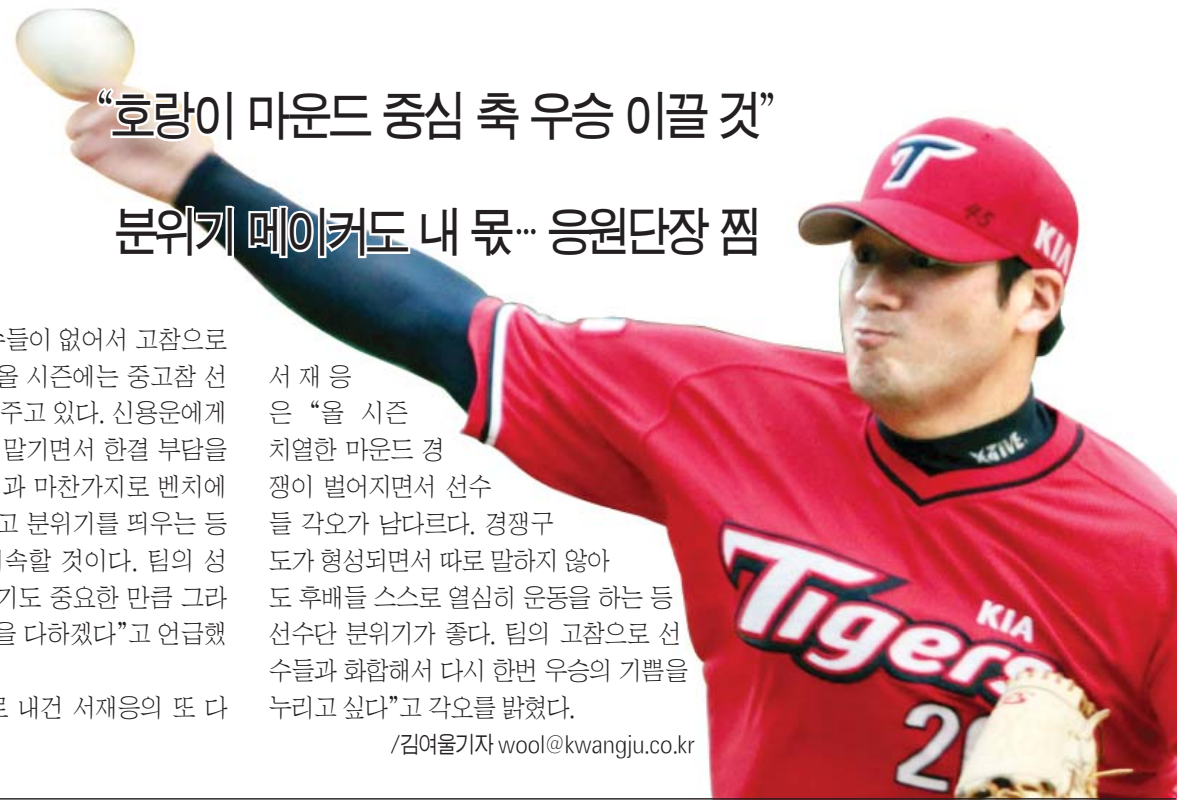
마운드밖 '응원단장' 역할에도 충실할 계획이다.

서재응은 “지난해에는 선수단 중간역할

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없어서 고참으로 임무가 막중했지만 올 시즌에는 중고참 선수들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신용운에게 투수조 조장 역할을 맡기면서 한결 부담을 덜었다. 하지만 예전과 마찬가지로 벤치에서 선수단을 격려하고 분위기를 띄우는 등 '응원단장' 역할을 계속할 것이다. 팀의 성적에 팀워크와 분위기도 중요한 만큼 그라운드 밖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15승을 개인목표로 내건 서재응의 또 다른 목표는 팀의 우승.

“호랑이 마운드 중심 축 우승 이끌 것”  
 분위기 메이커도 내뿜... 응원단장 짝



서재응은 “올 시즌 치열한 마운드 경쟁이 벌어지면서 선수들 각오가 남다르다. 경쟁구도가 형성되면서 따로 말하지 않아도 후배들 스스로 열심히 운동을 하는 등 선수단 분위기가 좋다. 팀의 고참으로 선수들과 화합해서 다시 한번 우승의 기쁨을 누리길 바란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균형의 美

24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피겨 스케이팅 챔피언십에서 영국의 페니 콕스와 니콜라스 버클랜드가 프리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KIA전훈 날씨가 안도와주네

팜 투수조 무더위에 '혁혁' 日 야수조 추위에 '별별'

전지훈련 중인 KIA 타이거즈가 '극과 극'의 날씨에 곤혹을 치르고 있다. KIA는 팜과 일본에 각각 투·포수조와 야수조의 스프링캠프를 차리고 2011시즌을 위한 탐금질에 한창이다.

한겨울 추위를 피해 해외 훈련에 나섰다지만 팜의 무더위와 쌀쌀한 미야자키 날씨가 선수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팜에는 지난 4일부터 훈련을 해 온 안치훈·한기주 등 재할조 6명을 비롯해 김상훈·양현종 등 투·포수조 선수들이 기초체력훈련과 재활, 캐치볼, 웨이트 위주의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짙은 비로 고생을 했던 팜 선수단은 무더위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이종고를 겪고 있다.

윤석민은 “한국에는 한파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팜은 체감온도가 40도를 넘는 더위가 계속되고 있다. 예년보다 더 더운 것 같아서 힘들다. 한국이 그리울 정도다”며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팜 선수단이 더위와 씨름하고 있다면 일본에 있는 야수조는 추위와 싸우고 있다.

한반도를 강타한 한파는 일본 미야자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차가운 바

람과 함께 한낮 기온이 10도 아래에 머물면서 선수단은 중무장을 한 채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김주형은 “아침 저녁으로 칼바람이 불고, 낮에도 쌀쌀한 날씨가 계속돼서 부상을 조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팜에서 1차 스프링캠프를 소화한 전지훈련조는 27일 일시 귀국한다. 이들은 인천에서 하루 머문 뒤 28일 일본 미야자키로 재출국해 야수조와 합류한다. 도미니카에서 개인훈련을 해왔던 투수 로페즈는 26일 한국에 입국해 메디컬체크를 받은 후 28일 선수단과 함께 일본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WKBL, 광주시 농구협회에 발전기금

광주 코트를 달구었던 삼성생명 2010~2011시즌 여자프로농구 중립 경기가 24일 마무리 됐다.

지난 21일 신한은행과 KDB생명의 경기를 시작으로 서구 염주동 빙고을 체육관에서 막이 오른 광주중립경기에서는 24일까지 각팀 당 2경기씩 총 6경기가 진행됐다.

4강 팀의 순위싸움으로 눈길을 끌었던 이번 경기에서는 신한은행이 KDB 생명과 신세계를 잇달아 격파하며 5연승을 내달리며 1위 굳히기에 나섰다. 1게임차로 신세계를 꺾던 KDB는 광주 경기에서 1승을 챙기며 3위 신세계와 동률을 이뤘다. 2위 삼성생명과 1위 신한은행 등 강팀들과

입장 수입 등 1000만원  
 광주 중립경기 마무리

격돌했던 신세계는 옛 안방에서 2패를 안았다. 한편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은 24일 삼성생명과 국민은행의 경기 하프타임에 광주시 농구협회에 중립경기 입장 수익 등을 포함한 초·중·고 발전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셀프아트 단열결로방지 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 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 난방비 절감효과,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품디자인으로 바꿔주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특허 제0497254호 / 특허 제10-0562035호

IPALG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 WWW.IPALG.COM 또는 이파엘지.kr

광주전남 (062) 511-0444  
 대리점 010-6603-0405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

**지붕개량 금속칼라강판** 시공 판매

단 한번 시공으로 평생지붕 걱정 끝!

'슬레이트 지붕' 애틀단지 전남주택 '석면공포'

공정 직영 공정 직거래

주책 개·보수 현집, 누수, 방수 보수, 지붕 개량

인테리어 커피숍, 레스토랑 노래방, PC방, 식당 고급 인테리어

APT, 주택 리모델링 베란다 확장 욕실, 도배, 주방 거실 확장, 정판

협력업체 및 영업사원 구함

최신형 신개발품 대농금속칼라강판은 다릅니다.

- 한번 시공으로 수명이 반 영구적이며, A/S가 신속합니다.
- 정부인정 100% KS제품만을 사용합니다.
- 공정직영이므로 고객이 원하는 크기와 색상을 맞추어 드립니다.

단 하루면 시공완료 | 주택, 지붕, 창고 | 공장, 헨스, 닥트

색상별 칼라강판

대농산업 DAE NONG

본사 및 공장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서창동 530번지

062-373-6548 · 6549  
 010-8608-6548